

도, 조선·해양 중앙공모 잇단 선정

4월중 고창 만들권역 거점개발사업 등 21개 사업 선정돼 국비 622억원 확보 성과

전북도가 지난달 조선·해양산업 분야 중앙공모사업 잇단 선정으로 위기에 처한 도내 조선·해양산업의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4월중 중앙공모사업에서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 구축사업, 고창 만들권역 거점개발사업 등 21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62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산업부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인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 구축사업과 수출 농기계, 부품 품질 고도화지원 생태계 구축사업 선정으로, 농기계 부품 및 선박, 기자재의 기술개발과 품질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마련을 통해 기계·조선 분야의 산업 경쟁력 확보 및 향후 수출 전략화가 기대되며, 특히, 도내 조선 산업의 위기대응을 위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소형 선박, 기자재 산업 분야를 육성함으로써 도내 조선 해양산업의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해수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고창 만들권역 거점개발사업과 부안 대리·전막마을 특화개발사업 선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어촌특화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써 도정 10대 프로젝트인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가 순탄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 구축사업은 군산시,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등과 협업해 도내 조선 해양산업 기업의 중소형 선박, 기자재 선도 기술 선점과 신뢰성 향상 기술 확보를 위해 중소형 선박, 기자재 산업 분야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조선 산업의 위기대응을 위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소형 선박, 기자재 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유지를 위한 모듈 시험 인프라 구축, 원스톱 상용화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소형 선박,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농기계, 부품 품질 고도화지원 생태계 구축사업은 전북을 농기계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김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업해 농기계 산업의 설계에서 신뢰성 평가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연구·시험동 건립, 연비 분석 장비 등 농기계 신뢰성 시험 평가 인프라 및 전문 인력 구축을 통해 관련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 도내 농기계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고창 만들권역 거점개발사업은 법정 어항 배후지 등 어촌지역 생활중심지와 주변지역의 통합 거점 개발을 통해 지역단위 생활권·경제권 확대와 상생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들권역 중심지의 기능 효율화를 위한 마을 생태숲, 만들 건강방, 5계절 복합생태공간 등 기초 생활기반 확충, 계명산 초화류 식재를 통한 지역경관 개선, 지역특산물 판매·로컬푸드 체험

장 등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부안 대리·전막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어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 확충, 어촌특화산업화, 소규모 경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농축산·ICT 분야에 말산업 육성지원사업과 클라우드 러닝 및 팜봇을 활용한 원격재배 도농 교류포털과 스마트팜 구축 사업 등이 선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에는 5건, 1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월, 오감만족 체험 있는 농촌으로

도, '테마별 농촌여행코스' 고창·진안 2곳 선정

전북도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5월 테마별 농촌여행코스'에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감만족! 체험이 있는 농촌으로 떠나는 테마별 여행코스' 7곳중 전북도는 2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코스는 고창군과 진안군이다.

고창군은 청보리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우수관광농원이자 6차 산업인증체인 고창학원농장과 원료에서 음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상하 농촌테마공원과 선운선 도립공원을 연계했다.

진안군은 돼지, 물고기, 곤충 등의 소재로 다양한 동물 관련 체험이 가능한 마이돈 테마공원과 진안역사박물관, 진안홍삼산과 3곳의 명소를 구성돼 있다.

이번 코스는 5월의 푸르름과 농업·농촌을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와 다양한 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 등 기존의 우수관광농원이자 6차 산업인증체인 고창학원농장과 원료에서 음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상하 농촌테마공원과 선운선 도립공원을 연계했다.

이번 코스는 5월의 푸르름과 농업·농촌을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와 다양한 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 등 기존의 우수관광농원이자 6차 산업인증체인 고창학원농장과 원료에서 음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상하 농촌테마공원과 선운선 도립공원을 연계했다.

이번 코스는 5월의 푸르름과 농업·농촌을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와 다양한 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 등 기존의 우수관광농원이자 6차 산업인증체인 고창학원농장과 원료에서 음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상하 농촌테마공원과 선운선 도립공원을 연계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 드론기업 지원 나선다

도, '수요창출형 드론산업 육성 사업' 공모

전북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첫 단계 사업인 '수요창출형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공모하고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가 이번 추진하는 '수요창출형 드론산업 육성' 사업은 캠퍼스종합기술원이 사업을 주관하며, 현재 드론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기업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격차를 해소해 전북 드론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창출형 드론산업 육성' 사업의 공모는 2일부터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와 캠퍼스종합기술원 홈페이지(www.camptic.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들에 대하여 서류심사, 현장심사, 대면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기계 플랫폼, 센서, 인공지능, 모니터링 기술 등 드론 활용을 위한 기술·제품에 대

한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당 최대 4,000만원 내외, 총 8,000만원을 지원한다.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사업은 시제품제작, 홍보물제작, 마케팅, R&D컨설팅 지원 등 기업의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600만원 내외, 총 3,200만원을 지원한다.

전병순 미래산업과장은 "그동안 농생명·자동차가 주력이던 전북에서 미래 먹거리인 항공·탄소·소프트웨어가 융복합된 드론산업 분야에 선제적 대응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전북이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동 사업 추진과 동시에 농업용 드론, 해양용 드론 등 드론 기술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드론산업의 종착지인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사업을 준비해 미래 드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응 중이다.

/인재용 기자

어패류 불법 포획·유통 단속

전북도는 불법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도와 시·군, 해경서,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어구사용 및 조업금지구역·기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고 어린 물고기 잡는 행위, 불법어획물 포획, 유통·판매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용담호 유입 하천 수질 '양호'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조사결과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용담호 유입 하천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담호 유입 하천 7개 지점에 대해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정자천, 주자천 지점에서 하천 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 BOD 1mg/L이하), 그 외 금강본류, 계북천, 장계천, 구량천 지점에서는 1b등급(좋음, BOD 2mg/L이하)으로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용 기자



노동조합의 최대 행사인 세계 노동절을 맞아 1일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김광수 국회의원, 시장·군수, 전북도 및 시·군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조합원과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공무원노동조합의 기념식과 한마음행사를 가졌다.

전북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절 기념식·한마음행사

노동조합의 최대 행사인 세계 노동절을 맞아 1일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기념식과 한마음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 및 시·군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조합원과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송하진 지사는 축사를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의 화합과 노조 발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을 축하하고, 공무원 노조의 성장이 전북도정의 도약으로 연결돼 큰 힘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노동절 127주년을

기념하면서 공무원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전북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전북도의 발전을 다지는 자리가 됐다.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절 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는 매년 5월 1일 도시·군이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내년에는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개인지방소득세, 이달 중 신고·납부해야

전북도는 2016년도 귀속 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소득세 납부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성실신고납부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